

# 광주서 마약 범죄 하루에만 2건 발생 '충격'

'던지기' 마약 구매 30대 2명 검거  
폭행으로 입건 후 마약 복용 들통  
연 평균 200여명·올해 34명 검거  
광주경찰 5월까지 특별 집중단속

광주에서 하루 만에 마약 사건 2건이 연달아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마약이 광주 시민들의 바로 옆까지 침투했다는 공포감 때문이다.

실제로 광주에서 마약사범은 매년 평균 200여 명, 특히 올해는 지난달 말 기준 34명이 검거되는 등 지난해보다 증가하고 있다. 이에 광주경찰은 3개월간 집중 단속을 통해 마약 범죄 대응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20일 광주 서부경찰에 따르면 마약을 상습적으로 구매·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30대 남성 A·B씨가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오후 10시께 서구 광천동 재개발사업지 내 주택가에서 필로폰 0.2g(20만원 상당)을 가져간 혐의다.

이들은 보안이 강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한 후, 유통책이 마약을 숨겨둔 한 주택 대문에서 이를 챙겨 달아내려 했다. 이들은 빈집인 줄 알았던 주택 안에서 개가 짖고, 인기척을 느낀 집주인이 밖으로 나오자 당황해 마약을 길에 떨어뜨렸다.

이후 집 주인이 '길에서 흰색 가루가 든 수상한 봉투를 발견했다'며 경찰에 신고, 2주 가량의 끈질긴 수색 끝에 지난 16일

A와 B씨가 검찰에 검거됐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중학교 선후배 사이로 선배인 B씨는 검거과정에서 소량의 대마까지 소지한 것으로 밝혀져 상습 마약 복용 혐의도 받고 있다.

같은 날 광산구에서는 경찰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30대 남성 C씨에게서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다.

광산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 19일 오전 3시께 광산구 광주송정역 인근 한 모텔에서 투숙하던 중 안내실에 '불안하다'며 112 신고를 요청했고, 이후 출동한 경찰의 얼굴 등을 폭행했다.

당시 조사 도중 이상 행동을 하는 C씨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마약류 시약 검사를 했고 이날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이다.

경찰은 C씨의 검사 결과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정밀 감식을 의뢰한 상태며, 자택 압수수색 영장과 구속영장 영장도 함께 신청했다.

이처럼 광주에서도 마약범죄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온라인 비대면 거래 때문이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해 과거보다 쉽게 마약류를 구입할 수 있고,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 놓는 일명 '던지기' 수법 등으로 판매가 이뤄지다 보니 경찰 수사도 난항을 겪는다.

광주경찰 통계를 살펴보면 광주의 최근 3년간 마약류 사건 검거인원은 △2020년 304명 △2021년 153명 △2022년 241명이다. 이중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로 구

속된 이들은 △2020년 107명 △2021년 40명 △2022년 41명이다.

올해의 경우 이미 지난달 말 기준 광주에서 34명의 마약사범이 검거됐다.

경찰은 검거된 숫자보다 더 많은 마약사범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지난 1일부터 5월31일까지 3개월간 일선 전담 수사인력을 중심으로 마약류 불법 유통 사범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항정신성 약물 등을 비롯해 마약류를 유통·투약하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며 "정부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만큼, 특별 단속 등을 통해 지역 내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마약 범죄를 사전 차단·예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주비 기자 jub.kang@jnilbo.com

## 급증하는 다문화학생 맞춤교육 펼친다

전남교육청 '다문화교육계획' 발표

다문화학생 비율 전국 최대 수준  
이중 언어교육 활성화 등에 주력

전남 내 다문화학생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전남도교육청이 맞춤형 한국어교육 강화·이중언어교육 활성화 등 성숙한 다문화교육환경 조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20일 전남도교육청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3학년도 전남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전남지역 총 학생수는 지난 2018년 22만496명에서 지난해 기준 19만9630명으로 5년만에 10만명대로 감소했다. 2019년 21만3284명, 2020년 20만6785명, 2021년 20만3568명이다.

반면 다문화학생은 2018년 9789명(4.44%)에서 2019년 1만517명(4.93%), 2020년 1만701명(5.18%), 2021년 1만1194명(5.5%), 지난해 1만1367명(5.29%)로 나타났다.

지난 5년 간 전남 전체 학생이 약 10% 감소한데 비해 다문화학생은 약 16% 증가한 것이다. 이런 추세를 반영하듯 전남의 다문화학생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

다. 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의 다문화가정 학생이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맞춤형 한국어교육, 이중언어교육 활성화 등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먼저 각급 학교에서 한국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온라인 학습콘텐츠, 이중언어 전자책 등 교과 보조교재를 개발할 계획이다. 도교육청국제교육원과 대학을 연계해 교원·이주여성 대상 한국어 강사 양성 과정 연수도 운영한다.

학부모의 한국어 능력을 키우기 위해 다문화 가정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족센터·마을학교 등에서 관련 교육을 지원한다.

중도입국학생과 외국인 학생들에게는 공교육 진입 전 원스톱서비스를, 한국어 집중과정이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기간별 맞춤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지역 학생들이 다문화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게임·만화·활동 중심의 이중언어교육을 추진하고, 이주 여성을 학교 통·번역 인력으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또 메타버스와 이중언어동아리, 이중언어 페스티벌,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등을 통해 이중언어 사용기회도 확대한다.



"물은 소중해요" 세계 물의 날을 이틀 앞둔 20일 광주 북구청직장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물절약 실천과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을 그림으로 그린 후 실천을 다짐하고 있다. 어린이집은 기후변화에 따른 물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나건호 기자

이 밖에도 도교육청은 베트남, 중국 등의 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언어·역사·문화·예술 중심의 교육교류를 진행하고 국제직업학교를 신설할 예정이다.

김정희도교육청 정책국장 "지금까지 다문화교육은 학생들의 공교육 진입과 교육공동체의 다문화 감수성에 초점이 맞춰졌다"며 "앞으로 다문화학생들에게 실질

적인 도움이 되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전남교육청으로 발돋움하려 한다"고 말했다.

양기람 기자

## 제20회 호남마라톤

**대회일시** 2023년 4월16일(일) 오전7시~

**대회장소** 승촌보 영산강문화관 뒤 광장

**대회코스** 승촌보 영산강문화관 ~ 나주 영산교

**종 목** 남·여 개인전 10km, 하프

**참가비** 30,000원

**참가신청** 호남마라톤 홈페이지 (www.호남마라톤.kr/)

**이메일** 419marathon@hanmail.net

**접수마감** 2023년 3월 31일(금) (선착순 500명)

**참가문의** 061) 375-1201

**주최** 全南日報

**주관** 전일엔컬스 마라톤세상

**후원**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교육청